

사순 제2주일 복음 나누기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마태 17,2)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태 17,1-9
-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17 1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잠시 묵상한 후에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로 불렀던 이들이기도 합니다(마태 4,18-22).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게 되며, 구약시대의 중요한 두 인물인 모세(율법을 대표)와 엘리야(예언자를 대표)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모습을 드러내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17절), 눈앞에서 거룩하게 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2절),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5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인 이 순간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베드로는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며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합니다(4절). 이 자리의 세 제자들의 대표로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베드로에게 이 자리의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5절).”

지금 좋으니 지금 이곳에 머물자는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했던 베드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의 일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되살아나셔야한다고 하셨던 말씀에 베드로는 반박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16,23)!”라는 모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베드로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16,21)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16,24)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와는 정 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수난과 죽음,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수난의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신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그 곳에 편안히 머물고 싶건만 그것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받아들임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당신을 따라야하는지 말씀해주셨던 것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더욱 굳건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변모할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과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일’의 거룩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처럼 큰 변화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시기와 사건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